

완도군, 태풍 피해 적고 노화·보길 가뭄 해결됐다

피해 조사 및 복구 작업 신속...노화·보길 내일부터 급수 “인명 피해 없었던 점 다행...사전 대비 동참 피해 최소화”

강한 세력의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다행히 완도 지역에는 큰 피해를 입히지 않고 지나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태풍 '힌남노'는 9월 6일 새벽 3~4시 사이 완도 지역을 통과한 것으로 추정되며, 최대 풍속은 42.7m/s로 관측됐다.

군에서 집계한 태풍 피해 현황은 9월 6일 오전 8시 기준 보길면의 방파제 유실, 생일면의 급곡 호안도로 유실, 소안면의 정자와 버스 승강장 파손, 금당면의 정자 파손 등이다.

수산증 양식 피해는 현재까지 접수되지 않았다.

군청 및 읍면에서는 태풍 피해 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피해 지역은 신속하게 복구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무엇보다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을 정말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유비무환의 자세로 선박 인양, 시설물 점검 등 사전 대비에 동참해 주민 군민 덕분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완도군의 평균 강우량은 172.1mm를 기록했다.

특히 노화읍의 누적 강우량은 9월 6일 기준 644mm, 보길면은 711mm로 지난 3월부터 가뭄으로 시행했던 제한 급수를 9월 8일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단 노화·보길의 경우, 냇도제의 저수율이 낮아 추석 연휴 기간에만 제한 급수를 해제하고 이후에는 다시 시행할 예정이다.

제한 급수 해제로 노화읍과 보길면의 주민들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물 걱정 없이 보낼



수 있게 됐다. 신 군수는 “이번 태풍으로 노화, 보길 지역에 단비가 내려 제한 급수를 해제하게 됐다”

라며 “주민들의 불편함을 하루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급수 작업을 최대한 서두르겠다”라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강진군 농특산물 마케팅 대학, 선진지 견학 가다

고흥 해맑음팜농업회사법인 현장 체험학습

강진군 농특산물 마케팅대학 수강생 30여 명이 최근 해맑음팜 농업회사법인을 방문해 현장을 견학했다.

이번 견학은 민선 8기 핵심 공약사항으로 군민의 윤택한 삶의 기반이 되는 안전한 먹거리와 농어가의 소득증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로 실시됐다.

전남 고흥군 두원면에 소재한 농업회사법인 해맑음팜은 귀리, 메밀, 유자, 수도작 등 다양한 품종을 이용하여 1차산업인 생산부터 가공, 판매, 체험까지 이르는 6차 산업으로 발전시켜 건설하게 키워온 곳이다.

견학에 참여한 수강생들은 해맑음팜의 노화우와 성공 전략을 배우고, 귀리, 메밀, 유자, 수도작 등 다양한 품종을 재배해 오며 겪었던 시행착오와 성공적인 농사에 필요한 조언을 들으며 서로 묻고 답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또, 유자밭, 단감밭 등 함께 현장을 살펴보고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에 대한 벤치마킹 사례들을 공유하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강진=김영일기자

강진군, 한우협회와 위기 대응 간담회 가져

사료값 인상·생산비 절감 등 현안 사항 논의



강진군은 최근 강진군한우협회 한우산업 위기 대응 간담회를 가졌다.

사료값 상승과 사육두수 증가로 인한 주요 현안 문제에 대해 소통하고 한우인의 소득 향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강진원 강진군수와 강진군 한우협회장(윤순성) 외 주요 임원 7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한우가격 대비, 올해 8월 기준 경매 가격이 하락하는 반면 국제 곡물가격과 사료비가 폭등해 향후 농가 경영안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시점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강 군수는 강진군 한우산업 강진군 한우산업 4대 역점시책을 설명하고 1등급 출현율 향상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예산을 단계별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군과 한우협회는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 경산우 비육지원사업’을 통한 사육두수 감축 정책과 ‘저능력 암소 도태사업’ 확대, 그리고 다양한 생산비 절감사업을 함께 추진하고자 의견을 모았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위기 상황에서도 명품 한우 육성을 위해 애쓰시는 한우협회 임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한우산업 집중육성에 군과 함께 지역경제 핵심 동력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윤순성 강진군한우협회장은 한우인들의 소통과 화합 단결을 강조하며 “군과 한마음으로 사료값 상승에 따른 생산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우협회가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군은 한우협회 등 관련 단체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신규 시책을 발굴하고 위기를 사전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한우개량, 생산비 절감, 강진한우 명품화, 직거래 활성화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강진군 한우협회는 2013년 9월 출범하여 “군 한우협회”와 “읍·면 한우협회”로 조직되어 있으며, 회원 총370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 강진=김영일기자



장흥군, 찾아가는 노인 무료 안과 검진 실시

장흥군은 5일 군민회관에서 한국실명예방재단과 연계해 무료 안과 검진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무료 안과 검진은 노인실명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취약계층 노인들의 시력 향상과 실명 예방, 조기치료를 위해 한국실명예방재단 안과전문 2명이 포함된 전담팀이 검진에 참여했다.

이날 지역 주민 100여명을 대상으로 문진, 시력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세극등현미경 검사를 실시했다. 검진 후 이상 소견자는 투약, 상담 및 돋보기를 배부했다.

백내장이나 녹내장 등 안과적 수술이 필요한 대상자는 소득기준에 따라 한국 실명예방재단이 개안수술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해 치료를 돕는다.

장흥군보건소 관계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질환을 조기에 발견 적기에 치료함으로써 지역 어르신들의 실명예방 및 시력 향상과 삶의 질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해남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오는 24일까지 군 홈페이지에 지가정보 제공

해남군은 2022년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주민 열람을 실시해 의견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의 토지이용사항이 발생한 필지에 대해 산정된 제곱미터(㎡)당 토지가격으로, 총 4,577필지를 대상으로 열람이 진행된다. 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지

선정 및 토지특성 등의 적정여부를 재확인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14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 최종 결정·공시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종합민원과 또

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해남군청 홈페이지(www.haenam.go.kr) 및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장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부동산관리팀(☎061-530-509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